

쌀값 20만원선 붕괴...우울한 농심

산지 쌀값 20kg 당 4만9617원 전회보다 38원↓...양곡정책에 낙폭 줄어 재고 부담에 농협 등 출하량 증가...전남, 높은 생산량에 쌀 가격대 형성 농식품부, 공매 미실시·산물벼 전량 인수·민간재고 매입 등 대책 내놔

산지 쌀 값 하락이 계속되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산지 쌀 값은 수확기가 시작된 지난 10월부터 하락하고 있는데, 곧 보합세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오지만, 당초 정부가 약속한 한 가마니 20만원 선은 무너진 지 오래다. 특히 전남의 경우 많은 생산량 탓에 타 지역보다 쌀 가격대를 형성하면서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kg 당 4만9617원으로 전회(지난달 25일)보다 38원(0.1%) 하락했다.

지난해 역대급 폭락을 기록한 산지 쌀값은 지난 10월 5일 20kg 당 5만 4388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수확기를 거치며 지역농협에 재고가 쌓이기 시작했는데, 시장 쌀이 풀리대로 풀리면서 쌀값은 하락하기 시작했다. 지난 10월 15일 20kg 당 5만 2387원으로 전회에 견줘 2001원(-3.7%) 감소하며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어 지난 10월 25일 -2.4% 감소했고 지난달 5일(-1.6%), 지난달 15일(-1.0%), 지난달 25일(-0.3%), 이달 5일(-

0.1%)까지 산지 쌀값이 하락해왔다.

계속된 쌀값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농협과 같은 유통업체의 출하량 증가가 꼽힌다. 유통업체들은 벼 매입 물량이 많아지면서 재고 부담을 느껴 출하량을 대폭 늘렸다. 시장에 풀리게 된 쌀의 양이 증가하면서 쌀값이 자연스레 하락했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의 지속적인 양곡 정책으로 산지 쌀값 하락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농민들 입장에서는 쌀 가격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특히 국내 쌀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수매하고 있는 농협이 포화상태에 다달았다. 업계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지역 대다수 지역 농협 창고는 재고가 가득한 상태다.

김봉식 전국쌀생산자협회 광주·전남 사무처장은 "지난 5일 산지 쌀값이 0.1% 감소하면서 보합세로 돌아서려는 추세인 것은 긍정적인 신호"면서도 "지역 생산 쌀의 대부분을 수매한 지역 농협 중 한 곳에서 쌀을 시장에 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쌀값 하락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고금리, 경기침체 등 상황 속에서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도 매입이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벼를 굳이 구매하지 않는다"며 "고물가로 생산비가 급등한 만큼 쌀값 20kg 당 5만 6000원은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4월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산지 쌀값 80kg 당 20만원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매 미실시, 산물벼 전량 인수, 정부양곡 40만 t 사료용 처분, 민간재고 해외 원조용 5만 t 매입 등의 대책을 통해 쌀값 안정화에 힘쓰고 있지만, 지속적인 쌀값 하락에 쌀값 20만원 보장 약속은 물거품이 됐다.

특히 전국 쌀 생산량의 20% 가량을 차지하는 전남의 경우, 많은 생산량 탓에 타 지역에 견줘 가격이 낮아 지역민들의 한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달 5일 기준 산지 쌀값(전국)은 80kg 당 19만 8468원으로 조사됐지만, 전남 지역의 경우 18만원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경기미·충청미(20만~22만원) 등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쌀값 변동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쌀값 반등을 위한 대책 마련 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협 광주본부, 시교육청에 사랑의 김장김치 전달

돌봄이웃 아동청소년 300세대에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고성신)는 지난 5일(사)우리농업지킴이운동본부 광주지역본부에서 후원하는 '사랑의 김장김치'를 광주시교육청에 전달했다.

우리농업지킴이운동본부는 농협 임직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사회공헌 단체로, 설맞이 떡국 나눔, 건강한 여름나기, 추석맞이 꾸러미 전달 등 사업을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정선 교육감, 고성신 농협중앙회 광주본부장, 박내춘 농협은행 광주본부장 등 10명이 참여했으며 1500만원 상당의 김장김치 300상자(10kg)를 전달했다. 김치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돌봄이웃 아동청소년 300세대에 전달됐다.

고성신 본부장은 "돌봄세대 청소년들의 겨울나



기가 한층 힘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랑의 김장김치로 나눔을 실천하게 되어 기쁘다"며 "농협광주본부는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나눔문화

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전남작물보호제판매업협동조합, 나주시에 후원금 기탁

광주전남작물보호제판매업협동조합(이사장 전성주)은 지난 8일 나주시를 찾아 관내 복지시설을 위한 후원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전달식은 전성주 이사장과 강영구 나주시 부시장과 조합 임직원들이 참석해 후원금을 전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을 가졌다.

광주전남작물보호제판매업협동조합은 지역 농약판매 소상공인들이 1987년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지난 2021년 나주시 산포면에 신규 공동물류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조합은 대기업 농약제조사와 공동구매를 통해 유통단계를 효율화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지역 농약판매사에 안정적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등 업계발전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성주 이사장은 "2021년 조합 물류센터를 나주시로 이전하면서, 매년 후원금을 꾸준히 기탁하고 있다"며 "어려운 지역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



농산물품질관리사 김대성 기자의

'농사만사'

농사의 순리 보여주는 마늘·양파 농사

인고의 시간 거쳐야 좋은 결실 맺는 우리네 삶과 닮아

농사의 성패는 시기를 잘 맞추는 것에 달렸다. 사람에게 생로병사와 통과의례가 있듯 농작물에도 생과 사 즉, 심는 시기와 수확기가 있는데 이를 맞추지 못하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이는 봄에 파종해 가을에 수확하는 일반적인 작물보다는 '봄-파종기 가을-수확기'라는 원리에 반하는 특수한 농작물을 재배할 때 좀 더 와 닿는 것 같다. 세상 이치를 거슬러 실패하면서 그것이 옳다는 것을 더욱 뼈저리게 깨닫는다고 나 할까.

특히 생육기에 겨울나기를 거치는 마늘과 양파는 농사의 '순리'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마늘과 양파는 우리나라 대표 양념 채소 작물로 매년 각각 27만 1000t과 119만t이 생산되는 주요작물이다.

한지형과 달리 남부지방에서 재배하는 난지형 마늘의 파종기는 9월 하순부터 10월 중순이고, 양파의 아주심기(사진)는 10월 중순부터 11월 상순까지이다.

마늘은 심는 시기가 적정 시기보다 빠르면 벌마늘이나 통터짐 발생이 많고, 늦어지면 겨울철 동해피해로 중간중간 빈 포기 발생할 수 있어 기상 상황을 고려해 적정 시기에 맞춰 심는 것이 중요하다.

씨마늘은 선별을 통해 10a당 200kg 정도를 준비해야 한다. 마늘에서 발생하는 잎마름병, 흑색썩음균핵병, 선충 등은 씨마늘을 통해서도 감염되므로 건전한 씨마늘이라 해도 반드시 소독하는 것이 좋다. 소독 방법은 파종 전 씨마늘을 양파 자루에 넣어 중구 소독용 적용약제에 1시간 담갔다가 그늘에 말린 후 파종하면 된다.

파종 시기가 늦었다면, 파종 이후 월동관리 기간에 비닐과 부직포를 덮어 동해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양파는 육묘를 통해 묘 본잎이 2~3매가 될 때 1cm 간격으로 솟아 주는 등의 관리 후 10월 중순에서 11월 상순까지 정식을 하는데 정식 시에는 세워 심고 충분한 물을 줘 뿌리 활착을 유도



해야 한다. 잘록병과 노균병 예방을 위해 파종 직후 전용 약제를 살포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마늘·양파 농사가 파종은 물론 수확 적기를 두고도 애를 먹는다는 점이다. 마늘과 양파는 벼를 심은 후 6월 중에 수확하는데 마늘잎이 50~60% 정도 말랐을 때와 양파 잎과 줄기가 눈에 확 띌 정도로 드러누울 때 수확하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 그렇지 이 때를 맞추기가 쉽지 않아 작물이 상하는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쪽은 수확이 한창이고 한쪽에선 이식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적절한 시기를 감지해 파종하고 때를 맞춰 수확해야 하는 마늘·양파 농사처럼 인생사도 때와 상황을 고려해 일을 준비하고 시행해야 성공을 일굴 수 있지 않을까. 더불어 월동이라는 시련과 인고의 시간을 감내해야만 알차고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삶의 이치를 몸소 증명하는 것이 마늘·양파 농사가 우리에게 주는 매우 교훈이다.

/bigkim@kwangju.co.kr

광주신세계, 연말까지 '딸기의 신세계' 선보인다

광주신세계는 오는 31일까지 본관 1층 푸드마켓에서 9종의 딸기를 선보이는 '딸기의 신세계' 행사를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신세계는 NFT인 푸빌라가 좋아하는 '딸기의 신세계'라는 주제로 금실·설향·장희·킹스베리·비타베리·설화·만년설·홍희·알타링 등 다양한 딸기를 판매한다.

대표 상품인 흥희딸기는 국내 품종으로 작년 첫 출하 후 큰 반응을 얻고 있다. 또 일반 딸기의 두

배 가량 큰 킹스베리는 크기만큼이나 높은 당도로 소비자 수요가 큰 품종이다.

이밖에 하얀 색상과 파인애플 향이 특징인 만년설 딸기도 이색적인 맛과 모양으로 딸기로 인기가 많으며, 진한 향과 높은 당도를 가진 신품종 딸기인 비타베리, 적절한 당도와 산도, 식감으로 맛의 밸런스가 우수한 가장 대중적인 딸기인 설향딸기도 판매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조선의 시인
아름다운
시집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 신춘문예, 미성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지은이 | 조선의
펴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